

2023년 1월 소비자 실무 위원회 결과 보고서

- 일 시 : 2023년 1월 13일(금)
- 참 석 : GS SHOP 고객 22명, GS SHOP 임직원 6명
- 안 건 : GS SHOP 방송 콘텐츠 관련 고객의견 청취



GS SHOP 방송 시청 경험

• 전반적인 GS SHOP 방송 시청 경험

- GS가 오래된만큼 신뢰감이 드는데 약간 세련되지 못한 느낌이 있어요.
 - GS에서는 맨날 나오는 사람들만 나오고 신선한 느낌이나 딱 GS하면 떠오르는 분도 없어요. CJ는 패션하는 호스트도 많고 브랜드도 많고...
 - 방송 보고 요즘 유행하는게 뭔지 확인하려고 보기도 합니다. 생각지 못했던 상품이어도 방송보고 괜찮으면 구매하는 편이에요.
 - GS는 국내제품 스테디셀러만 판매해요. 항상 문제 없었던 실크테라피, 마데카크림 등 이미 오래되서 안정적이고 크게 문제 없을 것만 판매해요.
- ☞ GS SHOP 방송은 변화가 느껴지지 않음. 세련미가 부족하고 맛있게 특색이 없음

• GS SHOP 방송 콘텐츠 관련 의견

- 무대 구성이 평면적이다. CJ는 스튜디오 위에서 잡아 주기도 하고, 오픈되어 있고, 더 트렌디하게 느껴진다. 세트 구성을 인테리어 해놓고 입체적인 느낌이 들어요.
 - GS의 코디는 약간 촌스러워. 코디할 때 중간에 넣어서 입는 옷이 매칭이 안될때가 있어. 추천하지 싶은..
 - 이 쇼핑호스트면 이 제품! 이라는 연결성이 부족한 느낌인 것 같아요.
 - 입에 들어가자마자 맛있다고 하는게 공감이 안가요. 방송용인거 같고. 어떻게 입에서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맛있다고
 - CJ 임세영님은 라이브톡에서 참 이쁘게 대답해주요. 이만응은 믿고 산다는 라톡이 나오니깐 부담스럽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진정성이 있어 보였어요.
- ☞ 진행자의 전문성, 진정성 있는 멘트를 기대하며 방송의 요소요소가 전반적인 방송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느낌

• 브랜드PGM 관련 의견

- 뷰티시그널은 뷰티 전문 방송이어야 하는데 그런 느낌은 없음 일반 뷰티 방송과 차별화되는게 없음
 - 모든 방송이 허리 위로 많이 보이는데, 정음정 쇼핑호스트 방송할때는 다리가 싹 보이는데 편안해 보여서 좋았어요. 뷰티시그널은 은행 창구 같아요.
 - 더결은 이진아, 김성일씨가 잘 맞아서 편하게 볼 수 있어요. 근데 쇼미는 진행자들의 불협화음이 있어요. 이야기를 다 따로 해.
 - 이상민씨가 집에서 직접 찍은 후기도 좋지만 카메라 감독, PD님들의 시연 영상을 찍고 팁을 주는것도 좋을 것 같아요.
- ☞ 브랜드PGM에서는 전문적인 방송을 기대하지만 일반 방송과 비슷하고 정형화된 구성 방송이 다소 아쉬움

※ 관련 부서 내용 전달(전 카테고리 PD팀)